

**맑은 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잊을수 없지만,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물을 더럽히지 않고, 오물을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는 일 등인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데도 남의 눈을 피해 자기만 편하고자 아무 곳이나 버리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세히 알려 주셨다.

서울이 고향이신 할머니께서는

“한강이 예전처럼 깨끗해졌다니, 참 반가운 소리야. 옛날처럼 고기도 산다면? 한 번 놀러가야겠다.”

라고 하시며 옛날 한강에서 놀던 때를 그리워 하시는 것 같았다.

며칠뒤에 다친 발 때문에 절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나는 맑은 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잊을 수 없지만,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가꾸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

## 건강코너

# 냉방과 재향군인병 (레지오넬라병)

냉방의 계절이 되면서 실내환경오염이 건강의 위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내공기 오염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단열재 사용량의 증가, 환기를 감소 및 깨끗한 연료인 전기나 가스 대신에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데서도 기인하고 있다.

냉방은 비교적 새로운 환경제어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근년 건축물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고층화, 대형화 추세 경향으로 도심의 새로운 환경권을 형성하면서 신종 「빌딩증후군」을 낳고 있다.

금년에도 본격적인 냉방시즌을 대비하여 쾌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단순한 냉방병의 차원을 넘어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냉방병과 레지오넬라」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 · 레지오넬라병

이 병은 지난 1976년 7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펜실베니아주 제 58회 재향군인 총회 참석자중 2백 20명이 집단 감염 급성 폐렴환

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34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되었던 해의 연말 무렵에 Legionella Pneumophila 즉 폐진화성 재향군인병균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서 이미 이전부터 이 병은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추측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84년 고려병원에서 발생, 환자 4명이 사망하고 의료진 23명이 집단으로 감염된 바 있었던 전염성이 강한 신경질환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당시 보사부 역학조사반은 이 병원 영안실, 식당 등의 음식 찌꺼기나 먼지속에 있던 레지오넬라균이 중환자실 에어컨을 통해 흡입된 것으로 결론지었던 사건이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기도 하다.

이 균의 감염경로를 확실히 밝히기는 어려운데 주로 공조용 냉각탑의 냉각수가 이 균에 오염되고 이것이 재차 공조공기를 오염시키면서 건강장애를 끼친다고 볼 수 있다. \*